

Patients with Vasomotor Dysfunction



오 지 영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과

Jeeyoung Oh,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t is not uncommon to meet the patients who complain of acropedal coldness or burning sense. Diagnosis and management are often difficult and embarrassing. Here I will present some patients with vasomotor dysfunction, and discuss the reasonable diagnostic approach and treatment options.

Key Words: Vasomotor, Raynaud disease, Erythromalgia

증례 1.

46세 여자가 3년 전부터 시작된 수족냉증으로 왔다. 추운 곳에 나가면 양 손끝이 하얗게 변하고 시리다가 점점 과량게 질리고 아프다가 빨갛게 굳는다고 한다. 처음에는 겨울에만 증상이 있다가 최근에는 여름에도 냉방이 잘 된 곳에 들어가면 증상이 나타나며 아무리 더워도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다고 한다.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손끝에 시린감이 들고 소화도 안되고 여기저기 몸이 아픈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 필요한 신체진찰과 신경학적진찰은?
-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는?
- 치료는?

증례 2.

61세 여자가 2년 전부터 얼굴과 손발이 화끈거리는 증상으로 왔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더운 곳에 있으면 얼굴과 손이 벌겍게 달아오르면서 아파서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지내고 이불도 안 덮고 잔다. 그러면서도 찬물에 손을 넣으면 하얗게 질리고 시려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때도 종종 있다고 한다.

- 진단은?
- 확인해야 할 실험실 검사는?
- 치료와 예후는?